

##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 요인

전 은 영\*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성격의 결정적인 형성기라 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자기 행동의 수행 가능성에 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고 실행하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중요하다(Jang & Lee, 2003). 그 이유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Kim & Park, 1999; Park, Kim, Kim, & Min, 1999).

청소년기는 성인과는 달리 가족 등 주변 환경으로부터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사건에 종속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이 시기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불안정과 불균형의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기간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학교교육의 대부분을 입시교육에 치중하여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의 부담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Lee(1995)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지적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은 대체로 학업문제에 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고, 성적이 낮은 경우 높은 경우보다 스트레스를 더 빈번하면서도 강하게 받는다고 하여 청소년은 학교생활, 그 중에서도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발현되며 우울, 좌절감, 무력감 등의 정서적 증상을 유발하고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2004).

한편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가정내에서 가장 먼저 자기효능감을 경험하고 형성·발전시키게 되며(Bandura, 1986), 이 시기에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Moon, 1999). 즉, 부모는 자녀가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일차적인 모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Woo & Lee, 1994).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성취감을 부여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자녀는 자신이 계획된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동을 조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높게 형성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사실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불안정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되는 등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된다(Park, Kim, & Chung, 2004).

이와 같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인 변인들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은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변인이 많이 다루어져 왔고, 청소년이 속해 있는 학교환경과 가정환경을 종합하여 이들의 관계적 요소를 고려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

\*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서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청소년의 환경적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기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가족기능 차이를 파악한다.
- 2)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가족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II. 문헌 고찰

### 1.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스트레스 개념은 일반적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먼저,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긴장을 유발시키는 환경적 자극이나 내적요인 즉, 개인과 환경간에 평형을 방해하고 혼란시키는 특징을 가진 자극을 의미한다. 한편 개인과 사회 및 조직체계내의 적응능력이 환경적 요구 및 내적 요구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반응으로서 스트레스가 나타난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극과 반응간의 상호역동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관점은 심리적 과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개인의 인지 및 정서적인 특징을 환경내의 자극특성과 이에 대한 반응간의 중요한 매개변수로 파악한다(Lee & Jeon, 2001).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이러한 급속한 발달 경험으로 인해 심한 혼란과 스트레스, 그리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Diclemente, Hansen, & Ponton, 1996). 이러한 과도기적 특징 외에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적응, 학교생활에서 부딪히는 과중한 성취압력, 맹목적인 부모의 기대와 요구 등으로 청소년들은 어떤 다른 집단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34%는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ational Youth Commission, 2003).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진학과 성적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2003년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중학생의

66.4%, 고등학생의 75.8%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특히 고등학생의 31.4%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은 과거성취도의 경험으로서 작용하여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기조절 학습효능감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Park, Kim, & Chung, 2004). 또한 Kim과 Park(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점차 성장할수록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외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증가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자기효능감과 부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교생활, 교우관계, 학업성적 등과 같은 면에서 성취감이 저조할 경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아효능감을 저하시키게 됨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생활사건을 조사하여 청소년의 학교와 관련된 환경적 측면에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2. 자기효능감과 가족기능

Bandura(1977)에 의하면 초기 자기효능감은 가족으로부터 얻어진다고 하였다.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험을 통해서 획득하는 자기효능감 경험이 사회적 혹은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부모는 아동의 의사소통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를 충족시켜 주고 아동이 원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효능감 발달의 중요한 정보원인 다양한 성취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서 아동의 사회적, 언어적, 그리고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켜 준다(Ruddy & Bornstein, 1982). 이와 같이 초기 자기효능감의 발달은 정서적인 가족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Maccoby와 Martin(1983)은 청소년기에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해 온 사람보다 더 강한 자신감과 독립성을 보여준다고 하였으며, Shin과 Jang(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증가하며, 부모 자녀간에 친근하고 수용적이며 책임감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취하는 경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에 Ryan과 Solberg(1996)는 역기능적 가족구조에서는 자기효능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취경험이 제한되고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할 대리적 경험을 할 기

회도 적으며 언어적 설득을 경험할 기회도 제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가족기능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역기능적 가족구조의 병리적인 측면들은 자기효능감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요인으로 학교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가족환경과 관련된 가족기능이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실업계 남녀 고등학교 12개 학급(837명)과 남녀 중학교 12개 학급(873명)을 각각 지역별 할당 표출법으로 선정하여 담임선생님의 협조하에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다.

#### 3. 연구도구

##### 1) 자기효능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척도 문항중 청소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10문항을 발췌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기술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느 정도로 잘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지를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도저히 해낼 수 없다'면 0점, '자신 없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면 1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2점, 그리고 '전혀 문제없이 해낼 수 있다'면 3점으로 각각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76$ 이었다.

##### 2) 스트레스

스트레스 지수는 생활사건조사 조사표(The Life Event Checklist: LE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생활사건 조사표는 Johnson과 McCutcheon(1980)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Lee(1995)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 도구의 문항을 4개 하위영역(교우관계 7문항, 학교생활 5문항, 학업성적 3문항, 환경변화-이사/전학 등 3문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생활사건 조사표는 지난 1년동안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 자신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그 영향정도를 Likert척도상에 표시하도록 제작되었다. 점수는 '아무 영향 없음' 0점, '약간 영향을 줌' 1점, '보통 정도 영향을 줌' 2점, '상당히 영향을 줌' 3점으로 표기하도록 만들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지난 1년간 경험한 생활사건들 중에서 부정적 사건으로 표시된 경험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스트레스 지수로 삼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61$ 이었으며, 하위영역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45\sim.743$ 이었다.

##### 3) 가족 기능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기능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Smilkstein(1978)이 개발한 가족기능지수(Family APGAR)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적응도, 협력도, 성숙도, 애정도 및 친밀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해 각각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 총 2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기능은 괴롭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족원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원들이 서로 대화하거나 어려움을 함께 하는지의 여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려고 할 때 가족원들이 인정해주고 도와주는지의 여부, 가족원들의 다양한 감정변화를 서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지의 여부, 그리고 가족원들이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지의 여부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5$  이었다.

#### 4. 자료분석

설문조사결과 총 174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회수된 전체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된 설문지는 통계처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총 1710부의 설문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V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별 자기효능, 스트레스, 가족기능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고, 자기

효능, 스트레스, 가족기능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청소년의 자기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26.3%, 실업계 학생은 22.6%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876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51.2%를 차지하였으며, 여학생은 834명으로 48.8%이었다.

#### IV.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 가운데 중학생은 51.1%, 고등학생은 48.9%이었으며, 고등학생 중에서 인문계 학생은 전체의

##### 2.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 자기효능, 스트레스, 가족기능 차이

자기효능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t = -2.87, p = .004$ ),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t = -2.55, p = .011$ ).

스트레스에 있어서 각 하위 영역별 인구학적 특성별 차이

<표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 자기효능, 스트레스, 가족기능 차이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자기효능	중학교	28.08	5.11	-2.87	.004	
	고등학교	28.77	4.80			
	인문계	인문계	29.06	4.66	1.88	.060
		실업계	28.43	4.94		
		남	28.12	5.12		
		여	28.73	4.80		
교우관계	중학교	3.43	5.09	-4.36	.000	
	고등학교	4.53	5.61			
	인문계	인문계	4.10	4.99	-2.58	.010
		실업계	5.10	6.21		
		남	3.75	5.66		
		여	4.23	5.39		
학교생활	중학교	1.43	2.85	-3.30	.001	
	고등학교	1.95	3.58			
	인문계	인문계	2.01	3.30	.572	.567
		실업계	1.87	3.88		
		남	2.31	3.90		
		여	1.02	2.34		
스트레스	중학교	3.66	3.23	-1.91	.055	
	고등학교	3.97	3.43			
	인문계	인문계	4.06	3.30	.824	.410
		실업계	3.87	3.59		
		남	4.05	3.44		
		여	3.56	3.20		
환경변화	중학교	2.32	3.07	-5.59	.576	
	고등학교	2.40	3.15			
	인문계	인문계	2.41	3.15	.072	.942
		실업계	2.39	3.15		
		남	2.57	3.27		
		여	2.13	2.91		
가족기능	중학교	12.08	3.51	2.98	.003	
	고등학교	11.58	3.32			
	인문계	인문계	11.97	3.26	3.68	.000
		실업계	11.12	3.34		
		남	11.50	3.39		
		여	12.19	3.43		

를 검증한 결과, 교우관계 스트레스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더 높았으며( $t=-4.36, p=.000$ ),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t=-2.58, p=.010$ ). 학교생활 스트레스 역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더 높아 학교의 규범이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고( $t=-3.30, p=.001$ ),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 $t=8.37, p=.000$ ).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02, p=.002$ ). 이사 또는 전학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게 지각하였다( $t=2.96, p=.003$ ).

가족기능은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좋았으며( $t=2.98, p=.003$ ),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더 좋았고( $t=3.68, p=.000$ ),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4.19, p=.000$ ).

### 3. 청소년의 자기효능, 스트레스, 가족기능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자기효능, 스트레스, 가족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자기효능이 높은 경우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낮으며( $r=-.134, p<.001$ ),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반면에( $r=-.072, p<.001$ ), 가족기능은 높았다( $r=.194, p<.001$ ).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학교생활 스트레스도 높았고( $r=.872, p<.001$ ),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으며( $r=.338, p<.001$ ), 환경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게 지각하는 반면에( $r=.245, p<.001$ ), 가족기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r=-.108, p<.001$ ).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며( $r=.287, p<.001$ ), 환경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은 반면에( $r=.315, p<.001$ ), 가족기능은 저조하였다( $r=-.111, p<.001$ ).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환경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에( $r=.315, p<.001$ ), 가족기능은 저조하였다( $r=-.049, p<.01$ ).

### 4.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상대적 설명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교우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적, 환경변화)과 가족기능을 독립변수로 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가족기능이 3.8%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교우관계 변수가 더 추가됨으로서 설명력이 증가하여 6.0%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가족기능과 교우관계가 설명변수인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3>.

<표 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변수	$\beta$	$R^2$	F	p
Constant	39.887			
가족기능	.208	.038	66.208	.000
교우관계	.151	.060	53.948	.000

## V. 논 의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으로는 가족기능과 교우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이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및 행위를 의미하며, 그 행동의 결과가 사회의 유지·존속과 가족성원의 욕구충족에 영향을 준다. 가족기능은 고유 기능, 기초 기능, 부차적 기능으로 분류되며 또 이들은 각각 대내적인 기능(개별적 기능)과 대외적인 기능(사회적 기능)으로 나뉘어진다고(Choi, Yoo, 2003). Bandura(1977)에 의하면 초기 자기효능감 경험은 가족으로부터 얻어진다고 하였으며, Ruddy와 Bornstein(1982)는 부모는 아동의 의사소통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를 충족시켜

<표 2> 청소년의 자기효능, 스트레스, 가족기능 간의 상관관계

구분	자기효능	교우관계	학교생활	학업성적	환경변화	가족기능
자기효능	1.0000					
교우관계	-.134**	1.0000				
학교생활	-.046	.872**	1.0000			
학업성적	-.072**	.338**	.287**	1.0000		
환경변화	-.012	.245**	.315**	.315**	1.0000	
가족기능	.194**	-.108**	-.111**	-.049*	.006	1.0000

\* $p<.01$ , \*\* $p<.001$

주고 아동이 원하는 환경을 제공하므로써 아동이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효능감 발달의 중요한 정보원인 다양한 성취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Jang과 Lee(2003)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Park, Kim, & Chung, 2004)에서는 자녀에게 성취감을 부여하고 대응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자녀로 하여금 제약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태도를 취할 때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도 높다고하여부모와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교우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결과(Bandura, 1986; Jang & Lee, 2003)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를 통하여 친구관계는 자기효능감 형성의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제조명되었다. 청소년기의 가장 두드러진 사회·심리적 특징은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독립의 요구에 따른 '심리적 이유기' 현상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타인이나 외계사물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내면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자아를 찾고 자아를 발견하며, 독립적인 자아형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부모, 학교, 사회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기의 무조건적인 교우관계에서 벗어나 선택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동년배와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며 부모나 교사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성향을 갖게 된다. 또한 청소년 후기가 되면 교우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폭과 깊이가 점차 증대되고 기성세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반항에서 벗어나 합리적 비판과 논리적 대항의 자세를 형성하게 된다(Jang & Lee, 1998).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청소년들의 효능감 발달에 있어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또래 집단은 청소년들의 효능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다(Bandura, 1986). 즉, 또래집단에서 사회적으로 비효능적이라고 느끼는 청소년은 사회적 철퇴를 보이거나 수용받지 못하는 느낌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우관계를 증진시켜 친구로부터 인정받고 가치롭게 여겨지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상호중재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기능이 중요하며 더불어 교우관계에 있어서 원만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인격형성과 교우관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동등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자신감을 키워간다는 Printrich와 De Groot(1990)의 연구결과와 모순되는 것이며 선행연구(Park, 200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도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과거의 남아선호 사상 등이 점차 쇠퇴해지면서 아들딸 구분 없이 동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정보화·지식화 사회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여러 전문직종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자기발전의 기회와 성공한 여성들의 모습이 여학생에게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된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이 높은 경우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낮으며,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과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신념으로 정의되므로(Gellathy, & Meyer, 1992)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기효능감 측정에 과제난이도 선호도를 포함하고 있다(Jun & Kim, 2000). 결과적으로 자기효능이 높은 객관적인 평가와 상관없이 특정과제를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신감이 있으므로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입시로 인하여 청소년의 자살 및 비행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각자 능력에 적합한 진로설정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청소년들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개인의 학교환경적 변인으로서 스트레스 뿐 아니라 청소년의 가족환경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가족기능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에 미치는 설명력이 6.0%로서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표집대상이 대구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광범위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측면의 요소를 고려한 변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척도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Choi, H. J., & Yoo, Y. J. (2003).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Functioning Scale. *J Korean Home Economics*, 21(3), 15-28.
- Diclemente, R. J., Hansen, W. B., & Ponton, L. E. (1996). *Adolescents at risk handbook of adolescent health risk behavior*, Plenum Press, New York, 1-4.
- Gellathly, I. R., & Meyer, J. P. (1992). The effects of goal difficulty on physiological arousal, cognition, and task performance. *J App Psych*, 7, 694-704.
- Jang, M. S., & Lee, J. Y. (2003).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on adolescents' self-efficacy. *J Korean Living Science*, 12(4), 433-447.
- Jun, G. Y., & Kim, J. O. (2000). A study on self-efficacy,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in the bereaved old people. *J Korean Home Economics*, 38(1), 155-170.
- Kim, U. C., & Park, Y. S. (1999).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attern of Korean adolescents :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friends, family, and school. *J Korean Soc for the Study of Edu Psy*, 13(1), 99-142.
- Lee, E. H. (2004).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 *Korean J Health Psych*, 9(1), 25-52.
- Lee, S. Y., & Jeon, E. Y. (2001).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moking. *Korean J Youth Studies*, 8(1), 197-217.
- Lee, Y. J. (1995). The relation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to depression and anxiety.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 Lee, Y. M. (1995). *The study of stress and cognition of adolescence*. Master Dissertation. SookMyung Women University.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1-101. New York: free press.
- Moon, H. J. (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in Early Childhood and the Perceive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Home Economics*, 37(9), 141-151.
- National Youth Commission. (2003). Usual cognition of stress (12-19yrs). A Youth Protective White Paper, 22.
- Park, J. A. (2001). The relations of adolescence's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Park, Y. S., Kim, U. C., & Chung, K. S. (2004).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With specific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motivation. *Korean J Psych Soc Issues*, 10(3), 37-59.
- Park, Y. S., Kim, U. C., Kim, Y. H., & Min, B. (1999). Structural Dynamics of Life-Satisfac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 Analysis of Primary School Students. *J Korean psych*, 5(1), 57-76.
- Pr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 Edu Psych*, 82, 33-40.
- Ruddy, M. G., & Bornstein, M. H. (1982). Cognitive correlates of infant attention and maternal stimulation over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53, 183-188.
- Ryan, N. E., & Solberg, V. S.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 Counseling Psych*, 43(1), 84-89.

Shin, H. S., & Jang, Y. O. (2001).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s - 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on adolescents self - efficacy. *J Korean Home Economics*. 19(5), 189-202.

Smilkstein, G. (1978). The family APGAR: A proposal for a family function test and its use by physicians. *J Family Prac*, 6, 1231-1239.

Woo, H. J., & Lee, S. (1994). Investigation on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self - efficacy. *J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5(1), 71-90.

- Abstract -

Key concepts : Adolescent, Self-Efficacy

## The Influencing Factors on Adolescent's Self-Efficacy

Jeon, Eun Young\*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on adolescent's self-efficacy. **Method:**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7th through 12th graders(N=1710) enrolled in middle schools(N=

873) and high schools(N=837) in the metropolitan area of Daegu. The instruments had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self-efficacy, the life event checklist, and Family APGAR.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the stress. However, in case of the subjects who recorded higher scores at self-efficacy they showed higher scores at family func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powerful predictors of adolescent's self-efficacy were family function and relations of schoolmate. **Conclusion:** From these results, we can find that the family function and relations of schoolmate were actual factors that affected the self-efficacy of adolescents. Accordingly, affirmative emotion in family, harmonic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and sharing housekeeping works is recommended as a useful method in order to enhance the family function, and then the self-efficacy of adolescence will be increased.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eon, Eun Young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165, Sangdong, Susung-gu, Daegu 706-060, Korea  
Tel: +82-53-770-2284 Fax: +82-53-770-2286  
Email: jeoney@dhu.ac.kr / jeoney33@hotmail.com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